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우만·박원영·김익중 선생

호남의병, 국권 침탈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나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호남의병으로 활약했던 기우만(1846~1916)·박원영(미상~1896)·김익중(1851~1907) 선생이 선정됐다.

기우만 선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1896년 2월 장성향교에서 최초로 호남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나주에서도 이학상 선생을 중심으로 편제를 갖추고 기우만 선생이 일으킨 호남의병을 적극 지원했다. 장성, 나주에서 세를 얻은 기우만 선생은 광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의진을 구성해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웠다.

박원영 선생은 기우만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자 바로 참여했고 나주에서 광주로 이동한 정성의병

을 맞이하는 실무를 주관했다.

김익중 선생은 기우만 선생이 의병을 모으자 포수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한편 자신도 이에 적극 가담했고,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종군했다.

호남의병은 단발령의 철폐, 왜적의 구축, 개화정책 반대, 옛 제도의 복구, 국왕의 환궁 등을 표방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울 진출을 추진했으나 고종의 해산조치에 따라 광주에서 해산했다.

정부는 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려 기우만 선생에게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박원영 선생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김익중 선생에게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달의 625 전쟁 영웅

김갑태 육군 중령 (1924.10.1~1952.10.4)

피의 고지 탈환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이달의 전쟁영웅에 피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기습 공격을 하던 중 적의 포탄 파편을 맞아 쓰러져 3일 만에 전사한 김갑태 육군 중령이 선정됐다.

김갑태 중령은 부산에서 출생해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그는 1951년 강원도 한석산·가리봉 전투 등에 참여해 공적을 세웠다.

1952년 4월 육군 제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부임한 그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방, 우

두산 일대의 방어 임무에 투입됐다.

1952년 10월 2일 1중대장 겸 1대대장 대리 임무를 부여받은 김갑태 대위는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며 일시 피탈당한 피의 고지(748고지)의 탈환을 위한 기습공격을 벌였고 전대대원들이 맹렬하게 고지를 향해 돌격해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김갑태 대위는 격전 중 적이 쏜 포탄 파편에 맞고 쓰러져 후송된 지 3일만인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1953년에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윤봉길 의사 순국 제88주기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한 윤봉길 의사 순국 제88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렸다. <사진>

매한윤봉길의시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약전 봉독과 어록 낭독, 추모사, 헌화와 분향, 추모가 이어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을 맞아 일본군의 상해점령 전승 경축식이 열린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수동형 폭탄을 투척했다.

윤 의사의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석주 의사 추모식 열려

1926년 경제침략의 본거지였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뒤 자결해 민족혼을 일깨운 독립운동가 나석주 의사 94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나석주 의사 동상(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렸다.

황해도재령군중앙군민회(회장 기광현) 주최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소수의 회원이 참석했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고 김영환 님(1928.3.30.)



○ 군 복무 내용
- 1953.1.7. 육군 입대 (군번 9283700),
1957.11.10. 만기전역(하사)
- 춘천지구 수용대 복무 중 1953년 6월 17일~7월 13일까지 36육군 병원, 63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5사단 복무 중 1954년 12월, 1955년 4월 59후송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우측 허벅지에 총상(배우자 진술)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이명희 님(1931.5.6)



○ 군 복무 내용
- 1952.7.1. 육군 입대 (군번 9221311),
1955.7.10. 만기전역(일병)
- 56연대에서 복무 중 1953년 7월 16일~8월 12일까지 15병원에서 공상으로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작전 중 곡성에서 빗길에 차가 전복돼 무릎과 온몸에 부상을 입고 15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받음(본인 진술)

■ 고 정동은 님(1923.8.15)



○ 군 복무 내용
- 1951.3.21. 육군 입대 (군번 0600390)
- 15경비대에서 복무 중 1951년 7월 13일~8월 6일까지 제27육군 병원, 제7정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년 2월 16일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좌측 흉부 관통상을 입었음(자녀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